

학교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관계 분석*

손수경** · 이현정** · 홍세희***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학교 학습활동 및 교우관계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 질적으로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종단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만족도, 학습활동, 교우관계의 각 변인별로 변화 양상을 검토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초4~초6)과 후(초6~중3)의 기울기를 다르게 추정하는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다가 중학교 시기에는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활동은 두 시기 모두에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시기보다 초등학교 시기에서 그 감소율이 다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우관계는 두 시기 모두에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시기보다 초등학교 시기에서 그 증가율이 다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초기치 간 관계에서는 초 4시점의 학습활동이 높고 교우관계가 원만할수록 같은 시기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 간의 관계에서는 같은 교급 내에서 학습활동의 감소가 작은 학생일수록 그리고 교우관계가 더 크게 증가하는 학생일수록 같은 시기의 삶의 만족도의 감소 추세가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교급 간 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학교에서의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종단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삶의 만족도, 학습활동, 교우관계,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 종단연구

* 본 연구는 제 5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측정 및 통계연구실(KEMS) 박사과정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seheehong@korea.ac.kr

I.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인간의 어떤 발달 단계보다 중요한 단계이다(곽미정, 김영미, 2013). 이 시기에는 급격한 정서 및 신체적 발달을 겪으면서 혼란을 경험하는데(Arnett, 1999),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른다. 더욱이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입 중심의 교육제도 속에서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크고 격심한 경쟁구도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신미, 정성희, 유미숙, 2010). 이에 따라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불안과 부정적 감정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에 주목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는 이후 성인기 전반적인 삶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기도 하다. Yang(2008)의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에 느낀 행복감이 성인이 된 후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4.11.4).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정책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 가정환경 요인, 학교생활 요인, 지역 사회환경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하에 조성된 과도한 경쟁 분위기, 학업성취 압력, 부모의 과대한 기대 등으로 생활 전반에 걸친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 인해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현미열, 이종은, 박선남, 2003). 이에 따라 최근에는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 내적 요인으로는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긍정적 태도, 우울, 학업스트레스, 진로 정체감, 문제행동 등(강승호, 정은주, 1999; 곽수란, 2007; 신현균, 2002; 성은모, 김균희, 2013;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

양희, 2012; 신미 외, 2012; 안지혜, 윤유동, 임희석, 2016; 이현주, 권수정, 2013)이 있으며, 관계적 요인으로는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곽수란, 2007; 박병선, 배성우, 2012; 이현주 외, 2013; 조혜정, 2011), 인지적 요인으로는 학습습관, 학교 성적(문은식, 2007; 박병선 외, 2012; 안지혜 외, 2016),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 생활 적응(손보영 외, 2012; 신미 외, 2012; 안지혜 외, 2016) 등이 있다. 위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 있으며, Andrew와 Withey(1976)도 행복은 성격과 행동 특성, 태도나 신념과 같은 변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이론이나 몇 가지 소수요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청소년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성장하므로, 학교생활과 관련된 요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청소년기에 있어 학교는 배움의 장소이며 친구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사회적 장소이다(곽수란, 2007).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다양한 학교 내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환경과 조화 이루고, 이를 통해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적응은 학습활동의 만족스러운 수행, 친구 및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 적절한 성취 동기를 지향하는 것과 관련한다(손보영 외, 2012; Lynch & Cicchetti, 1997). 따라서 학교생활 적응은 학생에게 중요한 발달 과업이며, 이후 후기 청소년기나 성인기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는데 주요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송영경, 김영희, 황성실, 2011; 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또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돈독한 교우 관계를 맺는 것은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남궁지영, 김양분, 2015; 손보영 외, 2012; 한유선, 1996; Sears, Peplau & Freedman, 198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횡단 연구로 이루어짐으로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떠한 변인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급변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들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소영, 윤기봉, 2016). 특히, 초

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학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학업 난이도의 증가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변화하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급을 다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각 집단별로 회귀계수를 별도로 추정하여 단순 비교하거나 집단 평균에 대한 t검정을 하는 등 측정오차가 제대로 추정되지 않은 채 비교하여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를 보다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학교급을 하나의 연구모형에서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측정오차를 고려할 수 있는 잠재변인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종단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이들의 삶의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청소년 삶의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삶의 만족이란 개인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까지 자신의 삶을 잘 수행해 왔으며 스스로 만족함을 말한다(Fujita & Diener, 2005).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행복감, 행복, 생활만족도, 주관적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등 학자 및 학문영역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행복을 만족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Kumar & Dileep, 2006; Moorjani & Geryani, 2004). 한편, 김신영과 백혜정(2008)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들 간의 관계를 개념화하였다. ‘행복’은 협소한 개념으로 개인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상태이고, ‘주관적 안녕감’은 중간적인 개념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주관적 삶의 질’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하며 ‘주관적 안녕감’ 같은 심리적인 영역 이외에 다른 요인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가장 포괄적인 개념인 삶의 만족도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1. 삶의 만족도와 학교 학습활동, 교우관계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자기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숙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정옥분, 2006). 또한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일과를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적응은 청소년이 삶의 질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진행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성공적인 학교 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신경, 박민경, 안지선, 2014; 손보영 외, 2012; Oberle, Schonert-Reichi & Zumbo, 2011; You, Furlong, Felix, Sharkey, Tanigawa & Green, 2008). 학업수행과 친밀한 또래관계는 청소년기에 성취해야 할 주요 발달과업(황매향, 2006; 최창용, 이주연, 신유미, 2015) 이기 때문에 학교적응의 하위요소 중 학습활동과 교우관계는 각기 독립적으로 자세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습활동은 학교적응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청소년기에 맺는 대인관계는 주로 학교에서 만난 교우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교우관계를 학교적응에 핵심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김희진, 최장원, 이지현,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요소 중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성공적인 학업수행을 보일수록 삶의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최영걸, 유성모, 2014; Piko & Hamvai, 2010).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주어진 과제를 잘 해낼 수 있다고 느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ldo, Riley & Shaffer, 2006). 또한 전통적으로 학업적 요소와 청소년 삶의 만족 간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다수의 연구가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문은식, 2007; 박영신, 김의철, 2008; 소연희, 2007; 임미향, 박영신, 김의철, 2006).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학업성취가 주관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설명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학업성취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학교생활의 긍정적인 경험이 삶의 만족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은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학습활동이 청소년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또래 혹은 교우 사이의 건전한 관계는 학교적응을 예측하고 나아가 삶의 만

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박병선 외, 2012; 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최유선, 손은령, 2015; Armsden & Greenberg, 1987).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부모보다 또래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또래는 청소년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존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교우관계는 청소년 행복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였다(박병선 외, 2012; 조혜정, 2011). 국내 뿐 아니라 국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찾을 수 있는데, Gilman & Huebner (2006)의 연구에서 청소년과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위를 종합하면, 학교적응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교우관계가 원만할수록, 성공적인 학습수행을 보일수록 높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활동과 교우관계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고 이들 변인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2. 통제변인 관련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습활동 및 교우관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부모학력, 로그가구소득, 문화활동 경험, 자아탄력성,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을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가정의 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된다. 오영수와 이재영(2014)은 중고생의 행복도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을수록, 가정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행복감을 분석한 김일표, 손미아와 김영주(2013)는 성별과 학교급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풍요도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행복하다고 응답할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삶의 만족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며,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는 힘이 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은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낮은 상황에 불안해하며 유연적인 적응성에 취약하고,

심리적 외상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Block & Kremen, 1996; Trait,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아탄력성은 건강한 정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내적 변인이며, 삶의 만족과의 높은 연관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 등 모든 연령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이옥형, 2012; 임경희, 2010). 이처럼,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어떠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도 긍정적인 조절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송정화, 박병기, 임신일, 2012).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 삶의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다(김영민, 임영식, 2013).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와 형성하는 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총체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아청, 우채영, 2008).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부모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고(Cheng & Furnham, 2004),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양육을 경험할수록 주관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한유선, 1996). 반면, 청소년기에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규칙을 강조하는 경우 정서적으로 부모와의 단절감을 느끼며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김영희, 조호운, 2011).

3.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학교에서의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 질적으로 달라지는 지에 대해 종단연구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학습활동, 교우관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나타내는가?

둘째, 청소년들의 학습활동과 교우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종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초4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1차년도~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 총 7,07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적조사연구이다. 초4 패널 자료의 조사대상수는 총 2,378명으로 전체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중 남학생은 1,242명(52.2%), 여학생은 1,136명(47.8%)이다.

2. 측정도구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 외(2006)의 척도를 사용한 것으로, 문항은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등의 3개 문항이며, 5점 척도(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이 용이하도록 역산하여 값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Cronbach α 값은 .80~.86의 신뢰도를 보였다.

2) 학습활동

학습활동은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사용한 것으로 문항은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등 5문항이며, 5점 척도(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이 용이하도록 부정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역산하여 값이 클수록 학습활동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값은 .57~.66의 신뢰도를 보였다.

3) 교우관계

교우관계는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사용한 것으로 문항은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등 5문항이며, 5점 척도(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이 용이하도록 부정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역산하여 값이 클수록 교우관계가 원활함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값은 .70~.79의 신뢰도를 보였다.

4) 통제변인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SES) 변인으로 1차년도 부모학력과 로그가구소득, 문화활동 연간 경험횟수를 통제하였다. 부모학력은 부의 학력과 모의 학력을 연속변수로 변환하여 평균하였으며, 가구소득은 로그값으로 변환하였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1차년도의 긍정적 양육방식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총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 문항을 활용한 것으로, Cronbach α 값은 .85이다. 자아탄력성은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lock 외(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수정·보완한 14개 문항을 사용한 것으로, Cronbach α 값은 .85이다.

표 1
주요변인의 측정문항 및 신뢰도

변인명	문항 내용	신뢰도
삶의 만족도	나는 사는 게 즐겁다.	초4: .802
		초5: .807
		초6: .86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중1: .837
		중2: .806
		중3: .823
학습활동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초4: .699
		초5: .715
		초6: .719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변인명	문항 내용	신뢰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중1: .782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	중2: .763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R)	중3: .789
교우관계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초4: .627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초5: .615
	친구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초6: .565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R)	중1: .612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R)	중2: .642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	중3: .655

주. (R): 부정문항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와 이에 영향 미치는 학습활동 및 교우관계의 변화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분할함수 성장모형(Piecewise Growth Modeling)을 이용하고자 한다.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종단적 다층모형이나 잠재성장모형 같은 성장모형의 함수에 질적으로 다른 기간 또는 단계를 구분하는 분할함수를 적용하여 변화를 추정하는 모형이다(홍세희, 노연경, 2010; Li, Duncan, Duncan & Hops, 2001). 현실 속 자료들은 선형가정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분할함수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특정 사건이나 처치로 인해 관심변인에 변화가 생겨 이전 기간과 다른 변화궤적을 갖는 경우의 분석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동일한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6년 동안 응답한 자료이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로 구분하여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점차 증가하다가 이 시점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자료에 부합하게 모델링하였으며,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의 변인에 대해서도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 해당 시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선행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학업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김초록, 강충열, 2014). 또한, 학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식, 2009; 오영미, 허일범, 2016).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6학년 이후 학습활동의 변화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분할선형함수는 일반선형성장모형의 기본가정과 계수해석이 동일하지만,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특정 시점에서 수준 또는 변화율이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한다(김진호 외, 2012; 홍세희, 2010; Raudenbush & Bryk, 2002; Singer & Willett, 2003).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의 변화율이 다른 성장함수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 같은 변화율 효과를 반영한 성장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홍세희, 2010; Singer 외, 2003). 아래 식에서 π_{0i} 는 y 의 초기 기댓값, π_{1i} 는 초등학교 시기 변화율, π_{2i} 는 중학교 시기 변화율을 말한다.

$$Y_{ti} = \pi_{0i} + \pi_{1i}Primary_t + \pi_{2i}Middle_t + e_{ti}$$

분할함수 모형의 요인계수 행렬(A)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열은 초기치에 대한 요인계수이고 두 번째 열은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에 대한 요인계수, 세 번째 열은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에 대한 요인계수를 나타낸다.

$$A = \begin{bmatrix} 1 & 0 & 0 \\ 1 & 1 & 0 \\ 1 & 2 & 0 \\ 1 & 2 & 1 \\ 1 & 2 & 2 \\ 1 & 2 & 3 \end{bmatrix}$$

청소년의 학습활동 및 교우관계, 삶의 만족도 각각을 분할함수 성장모형으로 추정한 후, 학습활동 및 교우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림 1의 연구모형과 같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세 변수의 동일 시점 간에는 오차 공분산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학습활동과 교우관계는 밀접

한 관련이 있으므로 세 잠재변인(초기치, 초등학교 시기 변화율, 중학교 시기 변화율) 간에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은 AMOS 22를 사용하였다. 패널자료의 특성상 결측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측치리는 FIML(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이용했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로는 χ^2 , TLI, CFI, RMSEA를 검토하였다. χ^2 은 영가설이 너무 엄격해서 쉽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TLI, CFI, RMSEA는 모형의 간명성과 양호도에 대해 좋은 적합도 지수로 알려져 있다(홍세희, 2000). TLI와 CFI는 .90이상을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고, RMSEA는 .08이하면 적절한 적합도로 해석한다(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3; Tucker & Lewis,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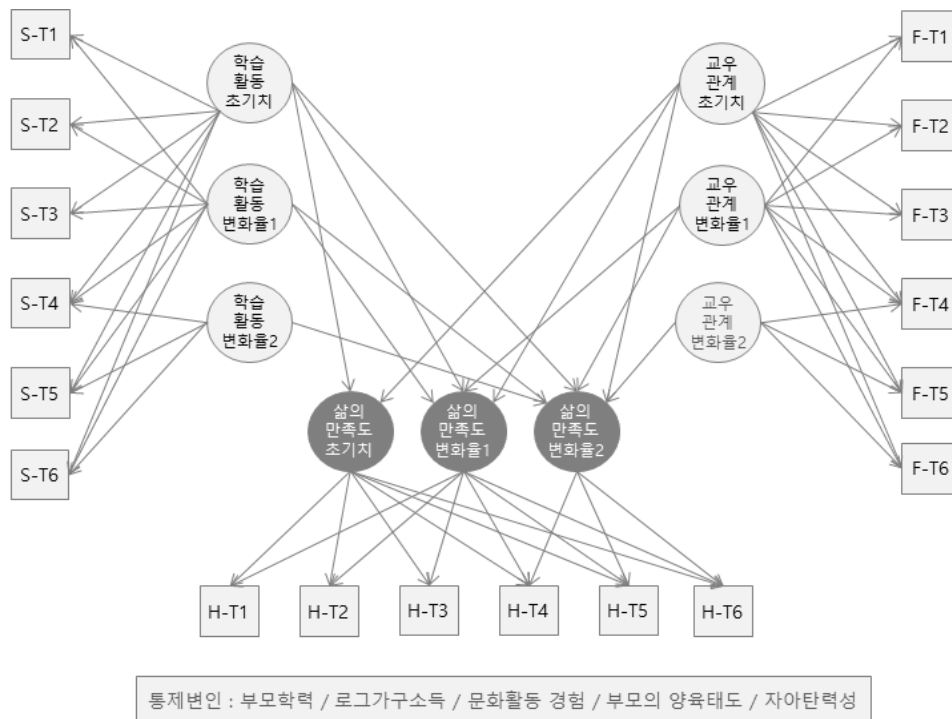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삶의 만족도 평균은 초등학교 시기에는 다소 증가하다가 중학교 시기에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학습활동의 평균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교우관계의 평균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주요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모든 변인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2을 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주요변인들이 정규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0).

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	.38	1																						
3.	.29	.40	1																					
4.	.25	.31	.45	1																				
5.	.22	.30	.38	.46	1																			
6.	.21	.26	.34	.41	.46	1																		
7.	.41	.23	.17	.09	.16	.10	1																	
8.	.26	.37	.19	.07	.12	.10	.50	1																
9.	.23	.26	.37	.18	.18	.15	.42	.48	1															
10.	.21	.23	.23	.35	.25	.21	.35	.38	.47	1														
11.	.20	.21	.23	.23	.39	.25	.33	.36	.42	.54	1													
12.	.17	.17	.20	.19	.30	.33	.34	.33	.41	.48	.61	1												
13.	.47	.23	.19	.11	.16	.12	.60	.39	.31	.27	.27	.26	1											
14.	.31	.39	.19	.11	.15	.08	.40	.57	.35	.27	.28	.25	.48	1										
15.	.24	.27	.40	.21	.18	.14	.35	.34	.53	.31	.29	.25	.37	.44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6.	.20	.23	.24	.36	.25	.22	.28	.28	.31	.52	.38	.33	.29	.33	.38	1								
17.	.21	.21	.23	.22	.38	.26	.25	.25	.31	.30	.51	.39	.29	.31	.35	.44	1							
18.	.20	.20	.23	.21	.27	.37	.27	.27	.29	.32	.40	.52	.28	.29	.30	.37	.51	1						
19.	.06	.09	.05	.02	.02	.01	.20	.22	.21	.20	.18	.18	.15	.19	.15	.12	.10	.14	1					
20.	.09	.06	.04	.04	.03	.05	.16	.19	.17	.14	.15	.17	.16	.16	.12	.10	.09	.10	.41	1				
21.	.09	.04	.06	.06	.02	.01	.13	.12	.09	.12	.08	.05	.14	.11	.14	.09	.09	.07	.13	.14	1			
22.	.53	.26	.16	.14	.14	.13	.49	.32	.26	.22	.22	.20	.56	.38	.31	.24	.26	.24	.13	.15	.17	1		
23.	.50	.27	.21	.15	.14	.13	.45	.32	.29	.24	.22	.22	.47	.33	.29	.25	.26	.22	.12	.13	.14	.52	1	
M	3.21	3.26	3.23	3.15	3.03	3.06	3.04	2.98	2.93	2.87	2.84	2.87	3.08	3.10	3.11	3.12	3.14	3.15	3.70	8.21	3.78	3.02	3.27	
SD	.7	.63	.67	.63	.59	.61	.50	.53	.52	.56	.52	.54	.48	.47	.44	.42	.41	.40	1.92	.59	4.86	.49	.53	

주. 1~6: 삶의 만족도(초4)~삶의 만족도(중3), 7~12: 학습활동(초4)~학습활동(중3), 13~18: 교우관계(초4)~교우관계(중3), 19: 부모학력, 20: 로그가구소득, 21: 문화활동 경험 22: 자아탄력성, 23: 긍정적 양육방식. 유의한 상관값은 굵게 표시하였음.

2. 변화 분석모형의 비교와 검토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추정함에 있어 분할함수 성장모형 도입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명변인을 투입하기 전에 무변화 모형, 선형변화 모형, 이차변화 모형, 분할함수 모형의 변화함수를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표 3).

표 3

각 변인의 변화 분석모형 분석 결과

		χ^2	df	p	TLI	CFI	RMSEA
삶의 만족도	무변화	620.346	19	.000	.742	.767	.115
	선형변화	187.175	16	.000	.913	.934	.067
	이차변화	117.991	12	.000	.928	.959	.061
	분할	88.279	12	.000	.948	.970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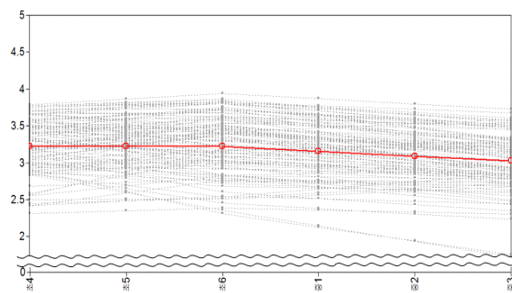
		χ^2	<i>df</i>	<i>p</i>	TLI	CFI	RMSEA
학습활동	무변화	847.865	19	.000	.766	.788	.135
	선형변화	171.157	16	.000	.948	.960	.064
	이차변화	57.692	12	.000	.980	.988	.040
	분할	82.483	12	.000	.968	.982	.050
교우관계	무변화	393.473	19	.000	.856	.870	.091
	선형변화	84.027	16	.000	.969	.976	.042
	이차변화	21.872	12	.039	.994	.997	.019
	분할	31.216	12	.002	.988	.993	.026

삶의 만족도의 모형 적합도는 분할함수 모형에서 TLI가 .948, CFI가 .970, RMSEA가 .052로 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차변화 모형에서는 분할함수 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모형도 분할함수 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적합도를 보였고, 무변화 모형은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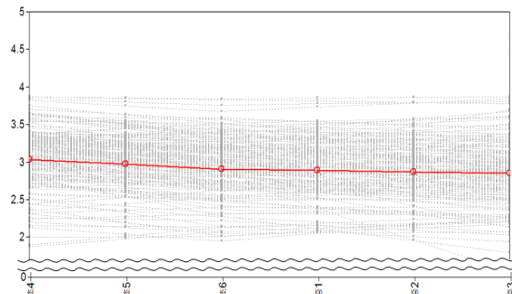
학습활동 모형의 적합도는 이차변화 모형에서 TLI가 .980, CFI가 .988, RMSEA가 .040이고 분할함수 모형에서 TLI가 .968, CFI가 .982, RMSEA가 .050인 것으로 나타났다. Cheung & Rensvold(2002)의 적합도에 관한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에 따르면, Δ CFI가 .01보다 작으면 두 모형의 적합도는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론적 연구 측면에서도 이차변화 모형은 연속된 기간을 질적으로 다르게 구분하지 않는 반면 분할함수 모형은 두 기간을 질적으로 다르게 구분하므로, 다른 변인과 더 많은 가설 검증이 가능하다. 또한 모형의 선택은 해석가능성과 해석용이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홍세희, 2010; Kline, 2010), 이차변화 모형은 이차항 계수를 가속도로 해석하는 반면, 분할함수 모형은 각 시기별로 선형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변화패턴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해석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현실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분할함수 모형이 적절한데 반해 예측변인인 학습활동을 이차함수로 모형을 선택하면 잠재변인 간 관계 설정과 해석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론적·현실적인 이유로 학습활동의 변화분석 모형은 분할함수 모형을 적용하였다.

교우관계 모형의 적합도는 이차변화 모형에서 TLI가 .994, CFI가 .997, RMSEA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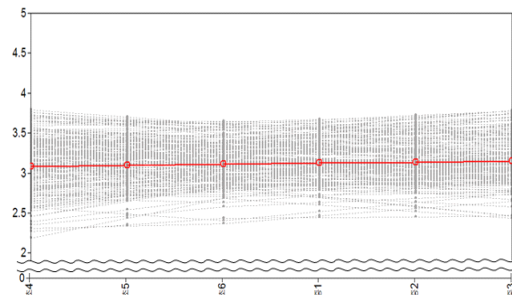
.019이고 분할함수 모형에서 TLI가 .988, CFI가 .993, RMSEA가 .0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활동의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교우관계의 모형에서도 분할함수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세 변수 모두 분할함수 모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 양상을 해석하였고(표 4), 개인 그래프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삶의 만족도〉



〈학습활동〉



〈교우관계〉

그림 2. 각 변인의 개인 그래프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의 삶의 만족도 평균적으로 변화가 없다가, 중학교 시기에는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치(I)와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S1)의 공분산은 부적으로 나타나, 초기치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는 더 빠르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치(I)와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S2)의 공분산도 부적으로 나타나, 초기치가 높을수록 중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는 더 빠르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치가 이미 높았기 때문에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종단연구에서 흔히 일어나는 패턴이다.

학습활동에서는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이 부적으로 나타나, 두 시기에서 학습활동이 평균적으로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치(I)와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S1)의 공분산과 초기치(I)와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S2)의 공분산은 부적으로 나타나, 초기치가 높을수록 두 시기에서의 학습활동은 더 빠르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는 초기치가 이미 높았기 때문에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교우관계에서는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이 정적으로 나타나, 두 시기에서 교우관계가 평균적으로 점차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치(I)와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S1)의 공분산과 초기치(I)와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S2)의 공분산은 부적으로 나타나, 초기치가 높을수록 두 시기에서의 교우관계는 덜 빠르게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도 다른 변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초기치가 이미 높았기 때문에 향상폭이 더 작게 나타난 것이다.

세 변수 모두 초기치와 두 시기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게 나타나, 개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각 변인의 모형 추정치

	I(초기치)		S1(변화율)		S2(변화율)		I-S1의 공분산	I-S2의 공분산	S1-S2의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삶의 만족도	3.226***	.212***	-.002	.042***	-.066***	.015***	-.043***	-.016***	-.005
학습활동	3.037***	.153***	-.064***	.023***	-.019***	.033***	-.023***	-.008***	-.002
교우관계	3.080***	.139***	.016**	.019***	.012***	.009***	-.032***	-.008***	-.002*

* $p < .05$, ** $p < .01$, *** $p < .001$

3. 연구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

각 변인별 분할함수 모형에서 추정된 모수의 분산이 대부분 유의하였으므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는 표 5에서와 같이 CFI는 .97, TLI는 .98 RMSEA는 .03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chi^2(df)$	TLI	CFI	RMSEA
425.938(150)	.972	.985	.028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초 4시점의 학습활동이 높은 학생일수록 같은 시기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시기의 학습활동 변화율은 같은 시기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에 학습활동의 감소가 작을수록 삶의 만족도의 감소도 더 작은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중학교 시기의 학습활동 변화율은 같은 시기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시기에도 학습활동의 감소가 작을수록 삶의 만족도의 감소도 더 작은 것을 의미한다.

초 4시점의 교우관계가 더 높은 학생일수록 같은 시기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도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 4시점에 교우관계가 더 원만했던 학생일수록 초등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가 더 크게 증가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초 4시점의 교우관계는 중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시기의 교우관계 변화율은 같은 시기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의 교우관계가 더 크게 증가할수록 같은 시기의 삶의 만족도도 더 크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중학교 시기의 교우관계 변화율은 같은 시기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시기에도 교우관계가 더 크게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의 감소도 더 작은 것을 의미한다.

표 6
연구모형의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학습활동I	→	삶의만족도I	.225 *	.090	.176
학습활동I	→	삶의만족도S1	-.090	.062	-.148
학습활동I	→	삶의만족도S2	.032	.036	.100
학습활동s1	→	삶의만족도S1	.489 ***	.113	.301
학습활동s1	→	삶의만족도S2	-.173	.093	-.205
학습활동s2	→	삶의만족도S2	.416 ***	.082	.377
교우관계I	→	삶의만족도I	.230 *	.114	.175
교우관계I	→	삶의만족도S1	.214 **	.076	.340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교우관계I	→	삶의만족도S2	-.059	.045	-.180
교우관계s1	→	삶의만족도S1	.705 ***	.130	.432
교우관계s1	→	삶의만족도S2	-.119	.107	-.140
교우관계s2	→	삶의만족도S2	.403 ***	.107	.304

주. I는 초기치, S1은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 S2는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을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논의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 동안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종단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별로 변화 양상을 파악해본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초4~초6)과 후(초6~중3)의 기울기를 다르게 추정하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다가 중학교 시기에는 삶의 만족도가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박영신 외(2000)가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졌다고 보고한 결과와 서정아, 엄지민(2015)이 청소년의 행복(생활만족도, 행복감)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동안 감소했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학습활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 모두에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시기보다 초등학교 시기에서 그 감소율이 다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습활동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일 수 있으나, 선행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다. 김경년(2010)은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지각을 조사하였는데, 학교수업이 가장 덜 효과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Klem & Connell(2004)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상위 학

교급으로 진학함에 따라 학교수업에 덜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학습활동이 수업참여와 비슷한 구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학습활동을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으로 다루고 있어 학습활동만의 양상을 보고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추후 종단연구를 통해 경험적 연구를 더 축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교우관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 모두에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시기보다 초등학교 시기에서 그 증가율이 다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 고등학생의 교우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김민성, 신태수와 허유성의 연구(2012)에서 교우관계가 매년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둘째,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부모학력, 로그가구소득, 문화활동 경험, 자아탄력성,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습활동, 교우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초기치 간의 관계,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관계, 변화율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치 간의 관계에서는 초 4시점에서 학습활동이 활발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할수록 같은 시점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관계에서는 초 4시점에서의 학습활동은 초등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초 4시점에서의 교우관계는 더 원만한 학생일수록 초등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 4시점에서의 학습활동과 교우관계는 중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 간의 관계에서는 초등학교 시기의 학습활동 감소가 작은 학생일수록 그리고 교우관계가 더 크게 증가하는 학생일수록 같은 시기의 삶의 만족도가 더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기의 학습활동과 교우관계 변화율은 중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시기의 학습활동이 감소가 작은 학생일수록 그리고 교우관계가 더 크게 증가하는 학생일수록 같은 시기의 삶의 만족도 감소 추세가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교급 내(초기치 간 관계,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 간 관계,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 간 관계)에서는 유의하지만 다른 교급(초기치와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과 중

학교 시기의 변화율)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각 교급에서의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같은 시기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에 학습활동이 다소 많지 않고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더라도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점에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횡단자료로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남궁지영 외, 2015; 박병선 외, 2012; 손보영 외, 2012; 조성연 외, 2011; 최유선 외, 2015)에서 더 나아가 종단적인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결과를 더 확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높은 환경에서는 초등학교부터 학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학생들은 학습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충실한 학습활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것은 학생에게 있어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소임에 분명하다. 그러므로 학교수업에서 학생들이 성실히 학습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교실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습활동은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효과가 누적되어 학업성취로 나타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학습활동보다는 사교육이 더 효과적인 학습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위 학급으로 진학함에 따라 그 효과성 인식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경년, 2010; 이종태, 2000).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태도를 격려하고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보다 학생의 이해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교수기법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수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무기력한 교실이 아닌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찬 교실의 모습을 되찾아야 하겠다.

둘째, 청소년 학생들의 교우관계에 대한 질 높은 관심과 지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교우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더 크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이순성, 2010; 임종필, 2017).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상급 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학업성취 부담이 더 과도해지며, 교우관계보다 학업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있으나, 적절한 대인 관계를 맺음으로서 긴장을 완화하고 삶의 유연성이 추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는 부

모가 자녀의 학업성취에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교우관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는 초등학교뿐 아니라 상급학교에서도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내 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생들의 교우관계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업부담이 증가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의 기간 동안 삶의 만족도와 학습활동, 교우관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패턴을 살펴보고, 변화 간의 관계도 검증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와 학습활동, 교우관계 간의 인과성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더욱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심리적 요인 뿐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이므로 교급의 변화 양상을 더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변화패턴을 가정하는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학습활동과 교우관계를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으로 포함하여 각 변인과 삶의 만족도와의 구체적인 관계가 분석되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많은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을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급규칙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 점수를 평균내서 사용하거나 학교생활 적응의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으로 사용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각 하위요인도 청소년기에 중요한 변인이므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어떠한 변화패턴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삶의 만족도와의 구체적인 관계도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를 경험적, 이론적으로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시기에 관심을 가지고 종단적으로 연구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고등학생까지도 포함한 연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이용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자료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수집될 예정이므로 고등학생도 포함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과 같은 종단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종단적으로 영향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어떤 시점에서 변화 양상이 달라지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의 성별에 따라서 차별적 효과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삶의 만족도에 매 시점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시간 의존적 변수)를 통제하는 등 보다 구체화된 모형 분석을 후속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승호, 정은주 (1999).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적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연구. **교육심리연구**, 13(4), 405-424.
- 곽미정, 김영미 (2013).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IT기반 사회의 가정생활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1(3), 49-57.
- 곽수란 (2007). 초·중학생의 생활만족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7, 1-21.
-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년 (2010). 학교 수업 및 자기학습과 대비한 사교육의 수학성적 향상 효과성 인식에 대한 종단적 고찰. **교육학연구**, 48(4), 135-166.
- 김명식 (2009). 청소년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2), 53-67.
- 김민성, 신태수, 허유성 (2012). 중고등학교 시기 교사-학생관계, 교우관계의 종단적 변화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6(2), 429-459.
- 김세영 (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동 유형, 자기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소영, 윤기봉 (2016).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추정. **한국청소년연구**, 27(2), 271-296.
- 김신경, 박민경, 안지선 (2014).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행동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6(2), 163-182.
- 김신영, 백혜정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민, 임영식 (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적 양육,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2), 343-366.
- 김일표, 손미아, 김영주 (2013).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행복감에

- 대한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2), 757-767.
- 김진호, 홍세희 (2012).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 불안의 변화 추정과 생태학적 영향 요인의 검증. *교육방법연구*, 24, 405-425.
- 김초록, 강충열 (2014). 초등학교 아동에게 6학년이 된다는 것의 의미. *초등교육학연구*, 21(1), 51-69.
- 김희진, 최장원, 이지현 (2012).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학교생활적응: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9(1), 273-298.
- 남궁지영, 김양분 (2015).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변인 탐색. *교육학연구*, 53(2), 1-25.
- 문은식, 김충희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병선, 배성우 (2012). 대인관계와 학교성적이 학교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학교급별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4(3), 215-238.
- 박아청, 우채영 (2008).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 의사결정 수준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2(1), 69-85.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박영신, 김의철 (2008).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교육심리연구*, 22(4), 801-836.
- 서정아, 엄지민 (2015).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VI: 데이터분석보고서 1-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연구보고 15-R16-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김근희 (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4), 177-202.
- 소연희 (2007). 학습자 동기 특성 변인들이 고등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1(4), 1007-1028.

-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 송영경, 김영희, 황성실 (2011).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1-19.
- 송정화, 박병기, 임신일 (2012). 다층모형을 적용한 주관적 안녕의 설명요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6(1), 139-175.
-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2).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3(1), 81-92.
- 신현균 (2002). 청소년의 학업 부담감,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및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171-187.
- 안지혜, 윤유동, 임희석 (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중학생 삶의 만족도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4(2), 197-208.
- 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연합뉴스 (2014.11.4). 한국 아동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1/04/0705000000AKR20141104076951017>. HTML에서 2016년 10월 7일 인출.
- 오영미, 허일범 (2016).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4(2), 59-74.
- 오영수, 이재영 (2014). 학술논문: 중, 고등학생의 행복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경제교육연구**, 21(2), 1-31.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이상필 (1990). **학교생활 적응수준에 따른 학업성적 및 행동특성의 차이 분석**. 홍익대

-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성 (20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의 종단적 추이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옥형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29-57.
- 이종태 (2000). **학교교육 위기의 원인과 실태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현주, 권수정 (201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0), 347-355.
- 임경희 (2010).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초등상담연구**, 9(2), 217-233.
- 임미향, 박영신, 김의철 (2006). 초등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 사회적 지원, 자기 효능감,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15(1), 53-67.
- 임종필 (2017).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 환경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옥분 (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생태학적 맥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9(3), 87-98.
- 조혜정 (2011). 부모 및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이타심의 매개효과.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페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3-20.
- 조호운, 김영희 (2011).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3), 143-165.
- 최영걸, 유성모 (2014). 초, 중학생의 양육환경,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뇌교육연구**, 14, 125-149.
- 최유선, 손은령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 성별, 학교급별 비교. **상담학연구**, 16(2), 233-247.
- 최창용, 이주연, 신유미 (2015). 중학생의 또래소외감과 이원적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6(3), 247-276.
- 한유선 (1996). **청소년의 주변환경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현미열, 이종은, 박선남 (2003). 청소년의 희망과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2), 116-123.
- 홍세희, 노언경 (2010). 비연속시간 사건사 분석을 위한 분할함수 모형화 방법의 제시 및 적용. **교육평가연구**, 23, 953-973.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10). **다층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방법론(워크샵 교재)**. 서울: S&M 리서치 그룹.
- 황매향 (2006).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7(3), 187-203.
- Andrew,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and London: Plenum, 20-31.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rnett, J. J. (1999). Adolescent storm and stress, reconsidered. *American Psychologist*, 54(5), 317.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Cheng, H., & Furnham, A. (2004).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self-esteem and self-criticism as predictor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1), 1-21.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
- Gilman, R., & Huebner, E. S. (2006).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report very high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311-319.
- Moorjani, J. D., & Geryani, M. (2004). A study of life satisfaction and gener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Psycholingua, 34*(1), 66-70.
- Hyun, M. Y., Lee, J. E., & Park, S. N. (2003). A study on the adolescent's hope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2*, 116-123.
- Klem, A. M., & Connell, J. P. (2004). Relationships matter: Linking teacher support to student engagement and achievement. *Journal of School Health, 74*(7), 262-273.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Kumar, S. P. K., & Dileep, P. (2006). Academic life satisfaction scale and its effectiveness in predicting academic succes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491869). Retrieved from ERIC database.
- Li, F., Duncan, T. E., Duncan, S. C., & Hops, H. (2001). Piecewise growth mixture modeling of adolescent alcohol use dat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8*(2), 175-204.
- Lynch, M., & Cicchetti, D. (1997).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adults and peers: An examination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81-99.

- Oberle, E., Schonert-Reichl, K. A., & Zumbo, B. D. (2011).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Personal, neighborhood, school, family, and peer influ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7), 889-901.
- Piko, B. F., & Hamvai, C. (2010). Parent, school and peer-related correlate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10), 1479-1482.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Sears, D. O., Peplau, L. A., & Freedman, J. L. (1988). *Soci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ihn, M., Jeon, S. H., & Yoo, M. S. (201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n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9), 131-150.
- Singer, J. D., & Willett, J. B. (2003). *Applied longitudinal data analysis: Modeling change and event occurrence*. Oxford University Press, USA.
- Suldo, S. M., Riley, K. N., & Shaffer, E. J. (2006). Academic correlat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7*, 567-582.
- Trait, M. (2008). Resilience as a contributor to novice teacher success, commitment, and retention. *Teacher Education Quarterly, 35*(4), 57-75.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1972 to 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 You, S., Furlong, M. J., Felix, E., Sharkey, J. D., Tanigawa, D., & Green, J. G. (2008). Relations among school connectedness, hope, life satisfaction, and bully victimization. *Psychology in the Schools, 45*(5), 446-460.

ABSTRACT

The effects of school learning activities and friendships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study using a piecewise latent growth model

Son, Sookyong* · Lee, Hyunjung* · Hong, Sehee**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identify the effects of learning activities and friendships upon school on life satisfaction during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years. A piecewise latent growth model was employed to analyze the different patterns of change patterns the two school-years. The results showed that, in terms of the patterns of change in learning activities, friendships, and life satisfaction, piecewise latent growth modeling was found to be an appropriate methodology in that change patterns were estimated differently for the former period (elementary school 4th grade~6th grade) and the later period (elementary school 6th grade~middle school 3rd grade). Second, higher levels in learning activities and friendships on the par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fourth grade led to a higher satisfaction levels in the same grade. Third, increases in learning activities and/or in friendships in each school-period influenced an increase in life satisfaction levels generally. Findings from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learning activities and friendships had longitudinal effects upon the life satisfaction of students.

Key Words: life satisfaction, learning activities, friendship, piecewise latent growth model, longitudinal study

투고일: 2017. 3. 13, 심사일: 2017. 6. 9, 심사완료일: 2017. 6. 19

* Korea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orea University, seheehong@korea.ac.kr